



Salut Bakery, 2007



Kissing Girls, 2007



Sarah under the Water, 2007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 커플의 협연은 흔하다. 미술계에도 공동 작업을 하는 커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미술 작품이 갖는 고유성의 문제 탓에 대개는 설치 작업이나 퍼포먼스의 형태를 띤다. 한 마디로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두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 작가한테도 별로 없다는 얘기다.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니나 뢰머와 토어스텐 뢰머는 뢰머+뢰머(Romer+ROmer)라는 이름으로 보기 드물게 공동으로 회화 작업을 하는 부부 작가다. '이게 뭐야?' 그들의 작품을 이미지 파일로 받아보고 처음 든 생각이다.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 노천 카페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남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수영장 사진은 인터넷 블로그에만 들어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심지어 파일이 손상돼 있었다. 그러나 곧 픽셀이 깨진 사진들처럼 보이는 그들의 작품이 캔버스 위에 수많은 점을 찍어 완성한 회화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6월 20일부터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전시에 실제로 소개된 그들의 작품은 대부분 1m가 넘는 대작들이었는데(부인인 니나 뢰머는 "한국이 너무 멀어서 정말 큰 작품들은 배송고 왔다"고 농담 같은 얘기를 하기도 했다), 빛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인상주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화풍과 관람객에게 의미의 결정권을 넘기는 열린 해석이 인상적이다. 현대미술의 대표 거장 중 한 사람인 A.R. 펑크의 제자이기도 한 두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 베를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흥미로운 작업 방식과 표현 기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작품 속의 장면들은 실제로 두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베를린 거리로 나가 찍어 온 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다. 베를린이란 도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뭔가. 대도시는 사회의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베를린은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도시

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도시라는 점도 베를린의 매력이다. 도시와 사람들을 사진에 담고, 다시 그 사진을 바탕으로 회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진은 변화의 속도감을 잡아내기에 좋다. 과거 화가들이 사실적 묘사를 위해 카메라 옵스큐라를 활용했던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품의 영원성에 대한 욕구가 있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회화 작업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두 작가가 한 캔버스에 공동 작업하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부부라고는 해도 작가로서 각자의 작업을 해 나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젠가 우리의 스승인 펑크 선생님이 작업실에 오시더니 "너희는 아직도 안 헤어졌냐?" 하시더라(웃음). 한 캔버스에 두 사람이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아직까지 불만을 느끼지는 않는다. 당신들의 작품이 소외, 고독, 차별 등 대도시의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 우리는 대도시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관계와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단지 다채로운 삶의 장면들을 대중에게 보여줄 뿐이다. 작품에서 스승인 펑크의 영향을 느끼기가 어렵다.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독일 분위기로 볼 때 의외다. 펑크 선생님께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맥락성에 대한 관심이다. 개인과 사회, 작품 사이의 맥락성에 대한 영향을 스승으로부터 받았다. 정치의 도시 베를린은 최근 건축과 패션, 대중문화 등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대도시에 관심 많은 작가로서 서울이란 어떤 특색을 가진 도시인 것 같나? 어제 도착했으니 서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 주변의 거리(명동이다)의 역동적인 모습이 마음에 든다. 베를린은 흥미로운 도시지만, 어두운 색깔의 도시니까. **art** 에디터 이지연

# SENSE OF LIFE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부부 작가 뢰머+뢰머가 베를린이란 도시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art